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8²⁰²⁴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8

시절 인연	02	미래사회에 대비한 종단교육의 방향과 역할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5	보배, 비린 것
법정 스님 편지	10	선들거리는 바람결에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2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초대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8월 1일 발행 / 통권 354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미래 사회에 대비한 종단 교육의 방향과 역할

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미래지향적인 종교교육

교와 선이 똑같은 불교인데, 아직도 상호 질시와 반목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삼매와 정수(선정)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원화한 점에 그 병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지혜란 마음의 빛이다. 이를 무량광(無量光)이라고도 이른다. 지혜란 움직이는 작용, 선정이 정태(靜態)적이라면 지혜는 동태(動態)적이다. 그러므로 선정은 지혜가 되어 작용할 때 비로소 선정의 구실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재래식 선원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는 것으로 정진과 수행을 삼는 것은 반신불수(半身不隨)의 선밖에 이를 수 없어, 산문 밖에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종교교육이 되려면 이 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상관관계의 묘리를 철저하게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위에서 인용한 경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정·혜의 행을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어 문득 모든 세상을 보게 되고 온갖 중생들의 생각하는 바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시냇물이 맑으면 그 밑에 모래와 돌자갈 모습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도를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니지 못하면 나고 죽음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여래는 청정함을 가장 즐거워한다.”

불교가 해야 할 사명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저마다 뭉뚱이 있듯이 불교가 해야 할 직능과 사명 또한 막중하다.

첫째, 불살생(不殺生)의 사상이 세상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모든 불자들은 각성하고, 산 것을 소중히 하고 지키는 일에 어느 계층보다도 앞장을 서야 한다.

‘산목숨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받아 지닌 첫째 계목(戒目)을 내 자신과 이웃이 함께 지켜나갈 때 인간의 존엄성 또한 회복될 수 있다.

둘째,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少欲知足)의 경제관념이 보편적인 경제윤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한정된 지구자원의 보존을 위하고, 복과 덕의 의미를 일상생활에 구현하기 위해서, 선인들이 지녀온 청빈의 미덕을 우리 몸에 익히고 세상에 알려져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불교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다. 과소비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현대 문명의 재난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윤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생활양식으로 현재의 생활 방식을 전환하는 일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자연과 조화를 잃어 가는 오늘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설 자리가 사라져가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말과 제언이 현실사회에서 얼마만큼의 메아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선우도량에서 꾸준히 심고 가꾸는 ‘나무 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늘어놓은 것을, 여러 도반들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임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은 깨어 있는 젊은 혼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우도량의 어진 도반들이 있어 우리 불교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한구석 든든한 마음이다. 끝으로 휴정 선사의 교훈을 거듭 상기하면서 훈수를 마치고자 한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잘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망상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 이 글은 ‘올바른 승가상 확립’과 ‘승풍진작’을 위해 결연한 수행공동체 ‘선우도량’이 1995년 8월 21일~23일 남원 실상사에서 개최한, 제9차 수련결사에서 발표한 법정 스님의 기조연설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기조연설문은 승가와 재가를 떠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글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배, 비린 것

222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다들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으라.

223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키라.

224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 어떤 부(富)라 할지라도,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如來]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 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25 마음의 통일을 얻은 스승은 번뇌와 욕망과 죽음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이치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26 가장 뛰어난 부처가 찬탄해 마지않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안정을 사람들은 ‘빈틈없는 마음의 안정’이라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과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그 이치 속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27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덟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네 쌍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부처님)의 제자이며
베핍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핍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여덟 지위란, 불교의 성자를 예류(豫流), 일래(一來), 불환(不還), 아라한(阿
羅漢)의 넷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네 쌍[四雙]이라 한다. 그 하나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위[位=向]와 도달한 경지[果]로 나누기 때문에 모두 여덟 자리
[八輩]가 있는 셈이다.)

228 고타마의 가르침에 따라 굳은 결심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욕심을 버리면, 죽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도달해야 할 경지
에 이르며 평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29 성문 밖에 선 기둥이 땅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거세게 불어
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런 진리를 관찰하는
착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30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씀하신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
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
라도 여덟 번째 생존을 받지 않는다는.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여덟 번째 생존이란, 예류과(豫流果)를 얻은 성자가 죽은 후 생존을 거듭할지
라도 일곱 번째는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덟 번째 생존에 이르는 일은 없다.)

231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實在]고 믿는 견해[我執]와 의심
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 있다 해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는 네 가지 악한 곳을 떠나,
여섯 가지 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네 가지 악한 곳은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를 말한다. '여섯 가지 큰 죄'는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이교의

교리를 추종하는 것이다.)

232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
도 그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 절대 평화의 세계를 본 사람
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
에 의해서 행복하라.

233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눈뜬
사람은 평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34 뛰어난 것을 알고, 뛰어난 것을 주고, 뛰어난 것을 가져오
는 위없는 이가 으뜸가는 진리를 설했다.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35 묵은 업은 이미 다했고, 새로운 업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 마음은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의 싹을 없애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든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236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눈뜬 사람에게 예
배하자. 행복하라.

237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진리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238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여, 지상에 사는 것이건 공중에 사는
것이건,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섬기는 완성된 승단에 예배하자.
행복하라.

239 텃사 바라문이 과거의 부처님인 캣사파에게 말했다. “성인

은 수수, 덩굴라가, 치나가 콩, 야채, 구근(球根), 덩굴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먹으며 욕심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덩굴라카는 식물의 일종.)

240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캣사파여.

(*캣사파는 전생에서 부처님이 구도자였을 때를 말한다.)

241 범천(梵天)의 친족(바라문)인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캣사파여,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242 캣사파는 말했다.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흠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 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3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며 허무론(虛無論)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肉食]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4 난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5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속임수, 질투, 허풍이 많고, 더없이 오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6 성질이 나쁘고 빗을 갇지 않고 밀고를 하고, 재판정에서

는 위증을 하며, 정의를 가장하여 사악(邪惡)한 짓을 하는 등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7 살아 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248 살아 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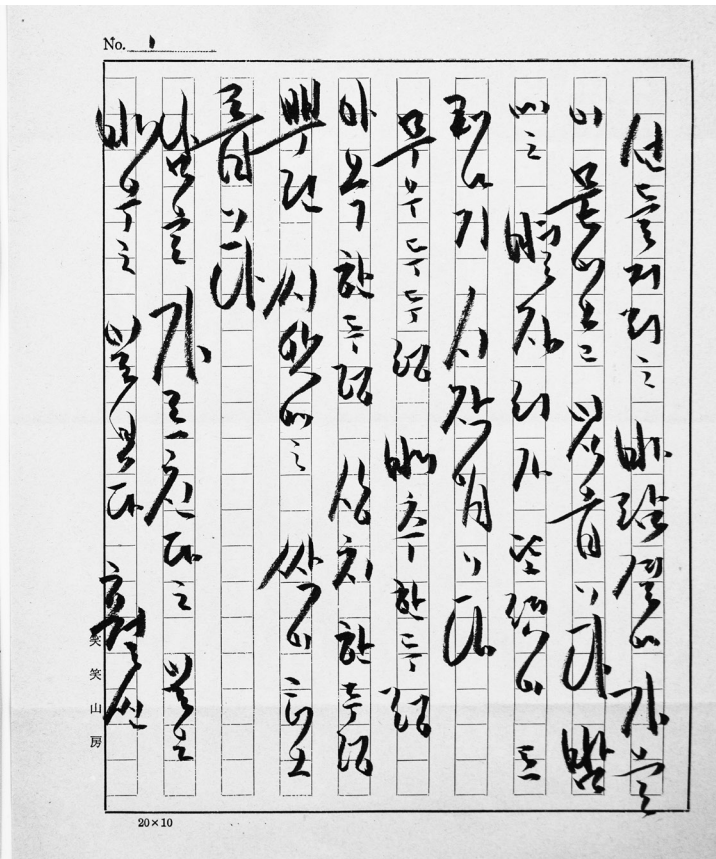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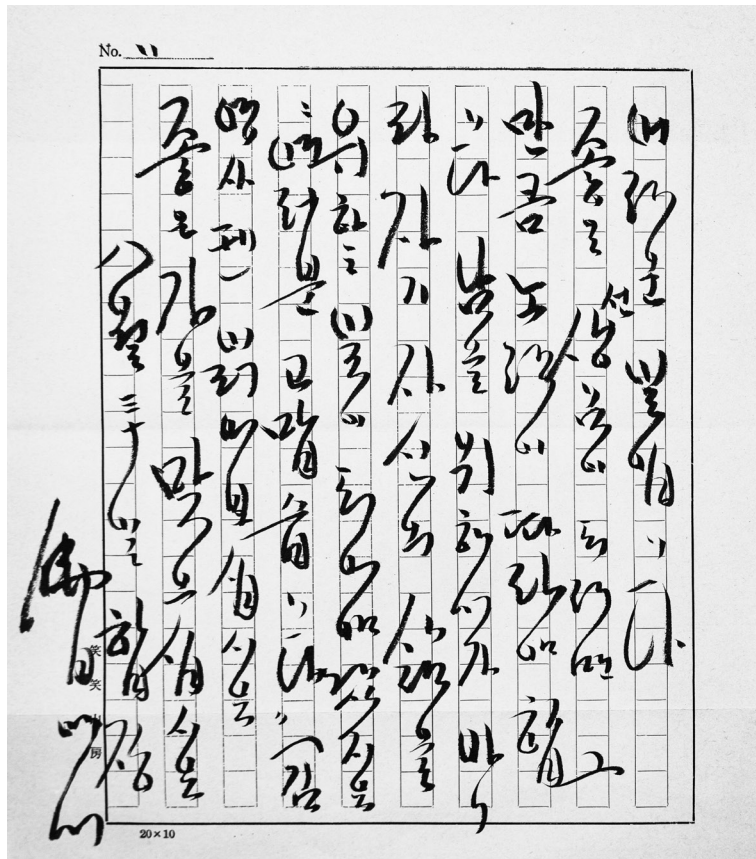
249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 나체, 삭발, 결발(結髮), 먼지, 거친 사슴 가죽을 입는 것도, 불의 신[火神]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不死)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베다의 주문,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250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 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251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룩한 스승(과거 캣사파 부처님)께서는 되풀이해 말했다. 베다의 신주(神呪)에 통달한 사람(바라문)은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리고 뒤따르기 힘든 성인(부처님)은 여러 가지 시구로써 그것을 말했다.

252 눈뜬 사람이 가르치신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제거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라문은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如來]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3. 법정 스님 편지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82년 유영숙님께 보내신 것입니다.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요즘 강원도 고랭지에는 감자꽃이 한창이라 더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엽게 피어난 그 꽃과 은은한 향기에 반쯤 취할 때가 있다. 감자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는 이 고장에 와 지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 그 꽃과 향기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식탁은 보다 풍성하고 향기로워질 것이다.

풀과 나무는 다들 자기 나름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웃을 닮으려 하지 않고 패랭이는 패랭이답게, 싸리는 싸리답게 그 자신의 삶을 꽃피우고 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건 저마다 삶의 가장 내밀한 속 뜻을, 꽃으로 피워 보이고 있다. 그래야 그 꽃자리에 이다음 생으로 이어질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달프고 팍팍한 나날에 만약 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할 것인가. 꽃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곱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우리 이웃이다.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조화를, 거칠고 메말라가는 우리 인간에게 끝없이 열어 보이면서 깨우쳐 주는 고마운 존재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밥주머니를 채우는 먹이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밥

한 그릇보다 꽃 한 송이가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위장을 채우는 일과 마음에 위로를 받는 일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들 삶의 중요한 몫이다.

그런데 이렇듯 아름답고 향기롭고 조출한 꽃이 어떤 과시나 과소비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꽃에 대한 모독이요 고문이다. 단 몇 시간을 치장하기 위해 그 많은 꽃들을 꺾어다 늘어놓는 일은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꽃다운 일이 못 된다. 장례식을 비롯하여 행사장에 무더기 무더기로 동원되어 시들어 가는 꽃들을 대할 때마다 탐욕스럽기까지 한 인간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실망과 거부반응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무고한 꽃들을 괴롭히지 말 일이다. 과시와 허세와 탐욕으로 여리고 사랑스런 꽃을 짓밟지 말 일이다.

7월은 연꽃이 피는 계절. 엇그제 전주 덕진 공원에 가서 연꽃을 보고 왔다. 해마다 7월 중순이면 마음먹고 덕진에 가서 한나절 연못가를 어정거리면서 연꽃과 놀다가 오는 것이 내게는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다.

장마철이라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다른 구경꾼도 없었다. 우산을 받쳐 들고 연못을 가로지른 다리 위에서 연꽃만이 지닌 신비스런 향기를 들으면서(말한다는 표현은 좀 동물적이니까) 연잎에 구르는 빗방울을 한참 지켜보았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방울도 연잎에서는 겨우 좁쌀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함께 일렁이다가 어느만큼 고이면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 버리는데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도르르 연못으로 비워 버린다.

이런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아하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 버리는구나 하고 그 지혜에 감탄했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연꽃을 제대로 보고 그 신비스런 향기를 들으려면 이슬이 걷히기 전 이른 아침이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모처럼 독립기념관에 들러 보았다. 한 가지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존경하는 원로 화가로부터 작년에 들은 말인데, 나는 그때의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 정원에 대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문이 있어, 연못에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백련(白蓮)을 심도록 했다. 그래서 화가는 멀리 지방에까지 수소문을 하여 어렵사리 구해다가 심게 했다.

그 후 연이 잘 크는지 보기 위해 가보았더니, 아 이 무슨 변고인가, 연은 어디로 가고 빈 못만 덩그러니 있더라는 것.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빈 연못으로 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인위적인 제거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안내판에는 '백련못'이라고 똑똑히 써 있었는데, 8천 평 가까운 그 백련못에 연은 한 포기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독립기념관만이 아니고 경복궁과 창덕궁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꽃철이 되어 혹시나 해서 어제 빗길을 무릅쓰고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원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경복궁 서북쪽에 큰 연못이 있어 나는 서울 근교에 살 때 연꽃을 보러 일부러 찾아가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거기 연못 속에

향원정(香遠亭)이란 정자가 있는데 송대(宋代)의 한 학자가 연꽃을 기린 글 〈애련설(愛蓮說)〉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꽃 향기가 멀리서 은은히 풍겨 온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연못에는 연꽃도 그 향기도 자취 없이 비단잉어 떼의 비린내만 풍기고 있었다. 경희루 연못도 마찬가지였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芙蓉)에서 따온 부용정(芙蓉亭)과 부용지(芙蓉池)가 있지만 역시 연꽃은 볼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조선왕조 때 심어서 가꾸어온 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뽑혀 나간 이 연꽃의 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꽃에게 물어보라.

꽃이 어떤 종교에 소속된 예속물인가.

불교 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1993

* 後記—신문에 이 기사가 나가자 청와대측에서는 진상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는데,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가 다 뜯어먹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일부러 필자인 내게 사람을 보내와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처럼 연못을 가꾸어 놓으라고 지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나는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사람들처럼 자기네의 먹이를 씨까지 말려 가면서 한꺼번에 모조리 뜯어먹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전주 덕진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지만 연꽃은 무성하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선재동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저 거사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살의 해탈장解脫藏에 들어갔다. 보살의 생각을 따라주는 힘을 얻었고, 부처님들의 출현하는 차례를 기억하고, 부처님들의 상속하는 차례를 생각하고, 부처님들의 명호의 차례를 새기고, 부처님들의 말씀하신 법을 살폈다. 또 저 부처님들의 갖추신 장엄을 알고, 부처님들의 바른 깨달음을 보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업을 이해하고, 점점 나아가다가 보타락가산에 이르러 여기저기서 대보살을 찾았었다.

문득 서쪽을 보니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수목은 울창하며 부드러운 향초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보석金剛寶石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고, 수많은 보살들이 또한 보석에 앉아 그를 공경해 에워싸고 있었다. 관자재보살은 대자비법을 설해 그들에게 모든 중생들을 거두어 주게 했다.

선재동자는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합장하고 눈도 깜박이지 않고 쳐다보며 생각했다.

‘선지식은 곧 여래이시다. 선지식은 모든 법의 구름이고,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장藏이다.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은 열 가지 힘의 원천이고, 선지식은 다함이 없는 지혜의 햇불이

고, 선지식은 복덕의 뿌리와 싹이고, 선지식은 온갖 지혜의 문이고, 선지식은 지혜 바다의 길잡이고,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기구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곧 보살이 계신 데로 나아갔다.

이때 관자재보살이 멀리서 선재동자를 바라보고 말했다.

“어서 오너라. 그대는 대승大乘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고, 자비심이 깊어서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구나. 보현의 뛰어난 행이 계속해 앞에 나타나고, 큰 서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 청정하고, 불법을 부지런히 구해 모두 받아 지니고, 선근을 쌓아 만족함을 모르고, 선지식에게 순종해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다. 문수사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에서 나왔으므로 마음이 성숙해 부처님의 힘을 얻고, 광대한 삼매의 광명을 얻어 오로지 깊고 뛰어난 법을 구하고, 항상 부처님을 뵈고 큰 환희심을 내고, 지혜가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서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남에게도 말하며, 여래의 지혜 광명에 편히 머물고 있다.”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보살이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냈다. 나는 보살의 대비행大悲行 해탈문을 성취했다. 보살의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가르쳐 끊이지 않는다.

나는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항상 모든 여래의 처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사랑스런 말과 이롭게 하는 행으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맑은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과 위의와 설법과神通 변화로써 거두어 주기도 하며,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성숙시키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행문을 수행해 항상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고 한다. 중생이 험난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악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대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쁜 길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옮겨다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또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면, ‘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이다’ 하고 원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한다.

나는 다만 보살의 이 대비행문을 얻었을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마하살들은 보현의 모든 원을 맑게 하고 보현의 모든 행에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착한 법을 항상 행하고, 모든 삼매에 항상 들어

가고, 그지없는 겁劫에 항상 머문다. 삼세 법을 항상 알고, 끝없는 세계에 항상 가고, 중생의 악을 항상 쉬게 하고, 중생의 선을 항상 늘게 하고, 중생의 생사의 흐름을 항상 끊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동방에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정취正趣였다. 사바세계에 와서 철위산鐵圍山 꼭대기에서 발로 땅을 밟으니, 사바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되었다. 정취보살이 몸에서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별과 번개의 빛을 가리니, 천룡팔부天龍八部와 제석, 범천, 사천왕의 광명은 먹덩이처럼 되었다. 그 빛이 모든 지옥, 축생, 아귀, 염라왕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없애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과 슬픔을 여의게 했다.

또 모든 불국토에서 온갖 꽃과 향과 영락, 의복 등을 두루 내리니, 이런 여러 가지 장엄거리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라 모든 궁전에 몸을 나타내 보는 이마다 기쁘게 했다.

그런 뒤에 관자재보살이 있는 곳으로 오니,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정취보살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철위산鐵圍山 : 수미산을 둘러싼 구산팔해九山八海의 아홉 산 가운데 하나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 모두가 쇠로 이루어졌다고 함

*천룡팔부天龍八部 : 팔부신장八部神將 중 천과 용이 으뜸이므로 천룡팔부라고 함.

6.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초대

손을 내밀어 보라
다친 새를 초대하듯이
가만히
날개를 접고 있는
자신에게
상처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언 꽃나무를 초대하듯이
겹겹이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자신에게
신비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
부서진 적 있는 심장을 초대하듯이
숨죽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기쁨에게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 앙 모 임 (02-741-4696)

■ **숲기행 일정 안내**

2024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

● **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 소	접수일
8월 24일(토)	전남 해남 우수영, 무안 회산 백련지	8월 1일(목)
9월 28일(토)	경남 합천 해인사	9월 2일(월)
10월 26일(토)	경북 김천 직지사	10월 1일(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점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참가 신청은 중앙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금)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 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8월 3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 법회 및 초삼일 신증기도

- 일시 : 8월 4일(일)~8월 6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주지스님 법문과 기도 집전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일시 : 8월 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 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재 후 매일 기도는 오후 2시에 봉행합니다.

칠석기도

- 일시 : 8월 8일(목)~10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지장기도 입재 및 백중 7재

- 입재 : 8월 2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원)

5재	8월 4일(일)
6재	8월 11일(일)
막재	8월 18일(일)

-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백중 회향 <자비도량참법> 7일 기도

- 일시 : 8월 11일(일)~17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설법전

하안거 해제 법회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11시
- 법사 :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보름기도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입재

- 일시 : 8월 19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8월 2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8월 2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금강 스님 초청 일요가족법회

- 일시 : 9월 22일(넷째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마가 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 정 : 매월 둘째주 토요일 14:00~16:00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나는 누구인가?”

-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19:00~21:00
- 기 간 : 7월 27일 ~ 11월 23일
- 동참금 : 15만원(총 5회)
- 장 소 : 설법전
- 접 수 : 길상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QR코드 스캔 - URL 접속 가능



불교입문 48기 수강생 모집

- 일정 : 9월 5일(목) ~ 11월 28일(목) (12주)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3:30~15:30 / 설법전
- 동참금 : 15만원 (교재비 별도)
- 수강 자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목차	일정	과목	강사
1강	9월 5일	불교란 무엇인가?	덕조스님
2강	9월 12일	생활속의 불교	덕조스님
3강	9월 19일	붓다의 전생담과 탄생	승범스님
4강	9월 26일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	승범스님
5강	10월 10일	붓다의 전법과 10대 제자	승범스님
6강	10월 17일	한국사찰 내 구조와 의미	순원스님
7강	10월 24일	사성제와 팔정도	남전스님
8강	10월 31일	삼법인과 중도	남전스님
9강	11월 7일	해탈로 가는 길	남전스님
10강	11월 14일	남한강 유역 옛 절터의 이해	순원스님
11강	11월 21일	사찰 예절과 예불문	덕조스님
12강	11월 28일	색즉시공 공즉시색(반야심경)	덕조스님
수료식	12월 3일(화)	수계의식 / 회향식	

- 계좌 : 신한 140-003-875653 /조계종 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